

# '요소수' 안정적 공급 추진

### 익산시 · 아톤산업, 요소수 품귀현상 · 대란 대비 TF팀 가동

익산시는 최근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대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아톤산업과 요소수 확보 및 공급 대응 위기 극복을 위한 TF팀을 가동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김형훈 경제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 요소수 생산업체인 (유)아톤산업을 찾아 김기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에 대해 익산시 관내에 요소수 우선 공급을 요청했고 이에 아톤산업은 지역 공급망 구축 및 가격 안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요소수 대란에 대비하여 관련 부서 TF와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생산업체인 (유)아톤산업과 지역 29개 판매업소의 요소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 동향 및 국내 수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수급 불안정 상황 발생시 관련 부서 합동으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요소수 재고 확보와 공급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지역 공급망 구축 및 가격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

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점매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에도 지역 요소수 생산업체인 아톤산업과 공급 약정을 체결, 품귀 사태에 공동 대응하는 등 가격 안정화와 공급량 확보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익산시의 이런 대응은 정부의 공급망 기본법을 촉발했다는 평가다.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망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적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가동 1,424일 만에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문을 닫는다.

## 선별진료소 연말 운영 종료

### 익산시, 코로나19 누적 검사 100만 건 달해... 겨울까지 경계 유지

익산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가동 1,424일 만에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문을 닫는다.

시는 코로나19 PCR 검사 건수 감소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을 고려해 선별진료소를 이달 말 종료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경계-주의-관심' 중 현행 '경계'로 유지하며,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고위험군 등에 무료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해왔던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의 운영이 올해로 마무리된다.

익산시 선별진료소는 2020년 2월 첫 가동 후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치르는 4년 내내 최선봉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 없이 달려왔다.

실제 그동안 익산 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체 검사는 100만 건에 달한다. 보건소에서만

하루 평균 700여 명이 검사를 받은 셈이다.

시는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체계 개편에 발맞춰 보건소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검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선별진료소 PCR 대상자는 내년 부터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 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의 보호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오랜 시간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며 최선을 다해 시민을 지켜낸 의료진의 노고를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선별진료소는 문을 닫지만 호흡기 바이러스는 지속되고 있는 만큼 증상이 있을 때는 슬관처럼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 영등시립도서관, 문체부장관 표창 쾌거

### 16년동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공로 인정... 전국 지자체 유일 수상

익산시 영등시립도서관이 16년간 지속 운영해온 개관시간 연장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이번 표창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한 포상이다.

영등시립도서관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화~금요일 오후 6시에서 밤 10시까지 4시간씩 연장 운영하며 '주경야독'이 가능한 야간 도서관 시대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또한 시민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충전소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해 독서환경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영등도서관은 2021년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야간시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자기계발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시설 리모델링 이후 지난 3년간 영등도서관은 '한여름 밤의 세익스피어', 도서관에서 만나는 세계의 미술

관', '명사초청 인생문답', '도시, 인문학을 만나다', '힐링 북콘서트' 등 도서관과 문화예술을 접목,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어린이 DAY를 운영 고전읽기 및 독서동아리 활동공간 지원해 시민의 독서력 증진과 생활 속 책 읽기 저변 확대, 야간 직장인 독서동아리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박철승 영등시립도서관장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으로 도서관 이용환경과 정보서비스 제공 등 독서환경을 탄탄히 제공해 시민의 문화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본격화

익산시가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을 본격화한다.

시는 기업 유치 공백 해소와 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현 산단 인근에 27만2,815㎡(약 8만평)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갖는 등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제 3산단은 기존 279만3,952㎡(84만5,000평)에서 306만 6,767㎡(92만8,000평) 규모가 된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익산 제3일반

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지역주민, 토지구 및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11월 23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과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안)을 공유하고 의견청취를 위해 개최됐다.

또한 지난 보상협의회 결과에 따라 토지구 및 관계인 대상으로 사업 내용, 토지구 및 물건 등 보상 내용 및 협의 절차 등을 안내와 질의응답을 통해



공급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토지구 및 지질조사 실시 후 올해 3월 전라북도

에 개발계획(변경)을 승인 신청했으며 편입토지구 등 토지구와 관계인에게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을 완료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보건의료, 초등 1~4년 겨울방학 필라테스 운영

군산시 보건소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초등학생 신체활동 프로그램 방학에 위해? 우리같이 운동하자!에 참여할 초등학생 1학년~4학년 학생 20명을 2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군산대학교 간호학과와 협업하여 성장기 초등학생을 위한 필라테스를 실시하며, 1월 9일부터 1월 25일까지 주 2회(화, 목요일) 3주 동안 총 6회로 운영된다.

필라테스는 근육 발달과 유연성·평형감각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척추 신장과 올바른 보행 자세 교

정 등 다양한 주제로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군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1~4학년 학생이며, 모집 기간 내에 보호자와 함께 보건소에 방문하여 체성분을 측정하고 개인정보 동의서 및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군산시보건의료 관계자는 "관내 초등학생들이 생활 리듬이 깨지기 쉬운 방학 동안 필라테스 운동을 통해 성장기 체력을 유지하며, 건강한 방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익산=김판곤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원룸 밀집지역 불법투기 분리배출 홍보

군산시가 불법투기가 민원하게 발생하는 원룸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1인 가구가 주를 이루는 원룸 밀집지역은 배달음식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공동주택과 달리 상시 관리자가 부재하여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오식도동, 산단 인근 원룸지역은 쓰레기 배출요령을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불법투기의 주범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가 쉽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다.

이에 군산시는 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로 번역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 군산시치매안심센터,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보급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실종 우려 대상자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형 단말기 형태로 실종 우려 대상자의 손목에 착용하고 보호자의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면 실종 우려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로 실종 경험 또는 실종 우려가 있는 시민, 특히 겨울철에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고자 배회감지기를 보급하였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실종 치매환자 실종 예방·방지를 위해 지문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서류 확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을 통해 지문등록이 가능하다.

익산=김판곤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